

# 1000일의 기록으로

##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평생 연결한다

### 유아기 기억에 관한 종합보고서

1987년 편집기획 전문업체로 설립된 오롬시스템(주)(대표이사 이호열, www.orum.co.kr)가 지난 십여년 동안 다이어리 부문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아주 특별한 육아일기 'Gem diary'를 최근 출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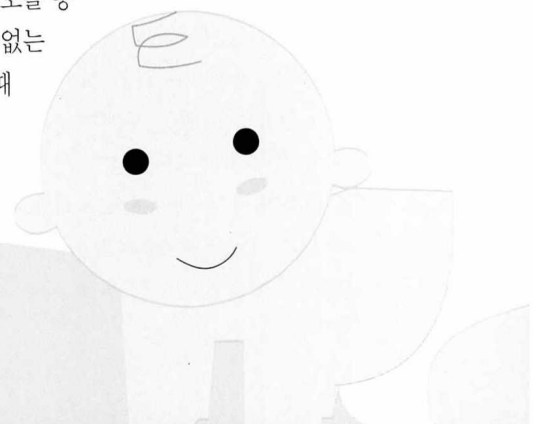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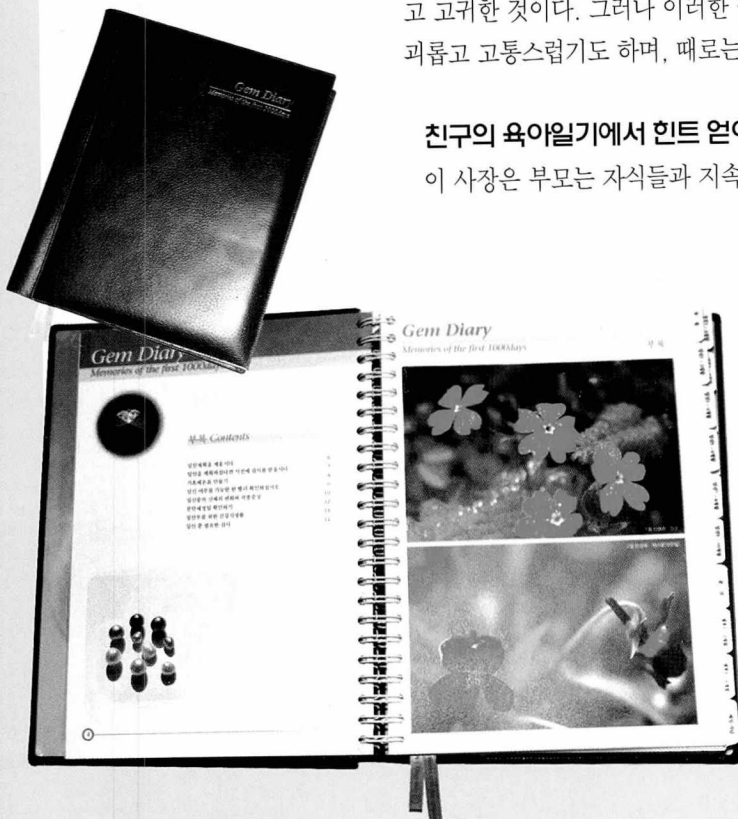
뜻 그대로, 'Gem Diary'는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인 임신기간 10개월과 탄생 후 24개월(총 1,000일) 동안의 아기 행적을 보석처럼 담는 일기장이다. 'Gem Diary'는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부모와 자식간의 소중한 기록으로, 성장한 후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이다. 즉, 자신의 유아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한 종합보고서로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과거로의 여행을 제공해 준다.

육아는 자신의 분신인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과 성장을 돕는 일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 숭고하고 고귀한 것이다. 그러나 이러한 숭고한 일이 항상 기쁨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.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럽기도 하며, 때로는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.

### 친구의 육아일기에서 힌트 얻어

이 사장은 부모는 자식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은 중·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를 어려워하고 친구들만 찾게되는 등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에 답답해했다. 그러던 중 이 사장은 우연히 친구의 육아일기를 보게 됐다. 색은 바래고 표지는 너털너털해졌으며 이사 도중에 몇 권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육아일기에 대한 아이들의 사랑은 상상이외였다.

그 때는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 없는 시간으로 부모를 통해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상상의 기간이기 때문이다.



하루 30분 정도 'Gem Diary'를 기록하는 시간을 통해 부모는 아이와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.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, 육아의 고통은 물론 한 생명체의 탄생과 성장, 발달의 기쁨 등을 기록과 함께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된다. 아울러 부모가 느끼는 감정과 육아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도 솔직하게 기록하면 장차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,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인간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사장이 1,000일 간의 특별한 육아일기를 기획한 것은 이 기간이 아이의 체력, 지능, 성격 등의 인성결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.

부모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 탄생에 대한 신비함도 점차 퇴색된다. 이에 이 사장은 당시의 생생한 느낌을 적어놓는 것은 그 때의 경이로움을 영원토록 이어주는 것이며 나아가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끈끈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.

### 2년 준비, 영구보존 다이어리로 탄생

이 사장이 육아일기를 만들기로 작정한 후에도 'Gem Diary'가 출시되기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.

이 기간동안 수집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들의 조언을 토대로 이 사장은 'Gem Diary'에 임신 후의 증상, 임신부를 위한 생활양식, 임신 중 검사, 출산준비물, 성장그래프, 성장발육 체크사항 등의 출산·육아와 관련한 유용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다. 또 각 달의 탄생석과 탄생화 사진도 신고 아이 사진을 붙이는 자리, 손바닥·발바닥을 찍는 자리, 탄생·백일·첫돌 때 온 축하전보 붙이는 곳 등을 배치함으로써 종합적인 육아정보 다이어리를 탄생시켰다. 이 제품은 독창성이 인정돼 실용신안에 등록돼 있기도 하다.

단, 17만원이라는 소비자가격이 약간은 부담스럽다. 그러나 이 사장은 "친구의 육아일기를 볼 때 원형이 변형된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"며 "평생을 간직하려면 제품의 내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. 이 기록을 통해 부모와 자식이 생명의 탄생과 관련한 사랑의 감정으로 끈끈히 연결되기를 바란다"고 밝혔다.

이 사장에게는 내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. 최소한 50년은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을 원했다.

'Gem Diary'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표지를 천연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연결 '스프링' 등의 주요소재도 독일에서 수입해 만들었다. 평생을 보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17만원이 결코 큰돈은 아니라는 게 이 사장의 생각이다.

또 이 사장은 1,000일 간의 기록을 충실하게 한 부모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50%를 되돌려주는 보상계획도 갖고 있다.

한편, 이를 통해 수집된 사례는 유아발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### 지독한 산사람, 산행같은 성실한 경영

이 사장은 산행을 지독히 좋아한다. 서울대학교 재학시절부터 오랜 기간 전문산악활동을 해 온 이 사장은 설악산만 해도 200번 가량 등반했고 북한산은 300차례 이상 올랐다고 한다. 더구나 1996년에는 북한산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닌 것이 무려 100일간이나 이어졌다고 하니 이 정도면 중독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하다.

북한산 100일 등반의 경우, 건강관리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100일이 되자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져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. 한 번 시작하면 쉽게 지칠 줄 모르는 이 사장의 이와 같은 특성은 오롬시스템의 자체 개발 자동편집시스템 'OROM EDITOR'나 전환 프로그램 'OROM CONVERTER' 등으로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.

이 사장은 오롬시스템을 운영하기 이전에는 프리랜서 번역 활동을 했었다.

그런데 이 사장은 번역가로서의 모습에 미련(?)이 남아서인지 경영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에는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다. 더 크고 알찬 기업을 만들겠다는 욕심 때문이겠지.

한편 이 사장에게는 산행할 때의 꾸준한 마음가짐과 같은 성실함에 대한 경영철학이 있다. 이 사장은 "오롬시스템은 국내 주요 법인체 VIP용 다이어리 시장의 8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,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결과도 아니고 어느 한 분야의 장점 때문에 달성한 성과도 아니다"며 "이는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히 전진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성과로서,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하루하루 발전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"고 의지를 굳게 세운다.

(조갑준 기자)



이호열 사장